

전남, 정책자금 받은 농민 중 신불자 1만3661명 '전국 최다'

최근 5년간 전국 4만6769명... 5000만원 이상 고액연체자도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받은 농민 중 4만6769명이 신용불량자며 이중 전남지역 농민이 1만3661명(29.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5000만원 이상 고액연체자 2387명 중에서도 전남지역 농민이 663명(27.8%)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 고액연체자 및 신용불량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을 통해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 중 4만6769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5000만원 이상 고액연체자는 2387명(29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자 현황은 지난 2009년 1만1818명, 2010년 1만7046명, 2011년 9385명, 2012년 4735명, 2013년 3785명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1인당 신용불량금액은 지난 2009년 9

만32원에서 2013년 9만2999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36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6848명, 경남 5617명, 강원 4998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5000만원 이상 고액연체자의 경우 전남지역이 6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373명(15.6%), 경남 247명(10.4%), 충남 227명(9.5%)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연체자 수는 2009년 967명에서 2013년 212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반면 1인당 연체금액은 2009

년 1억400만원에서 2013년 1억67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 의원은 "FTA에 의한 대외개방, AI와 구제역과 같은 질병으로 농촌경제의 경쟁력 저하, 소득 감소 등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일반시중은행이 1%대 예·적금금리시대를 여는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절한 금리인하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hkpark@kwangju.co.kr

광주·전남문화재단 직원 10명중 4명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60~70% 불과

광주와 전남 문화재단 직원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이며, 임금은 정규직의 60~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정진후(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35.95%, 전남문화예술회관재단은 36.6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광주문화재단의 경우 정규직의 60.71% 수준에 그쳤고, 전남문화예술회관재단은 78.26%에 머물렀다.

한편, 전국 13개 지역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직원 1024명 중 무기계약직, 사업계약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은 520명(50.7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복지, 문화 행등 업무만 재단에 위탁하고 정자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주지 않기 때문이다"며 "문화재단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차별 해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의료법인 설립 출연금

4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전남도는 의료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설립 출연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의료법인 설립 출연금을 현재 3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서지역에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재처럼 9억원의 출연금을 내면 되고 치료병원은 현재처럼 출연금이 없다.

도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결과를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고시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부실한 경영을 한 것으로 조사된 장성요양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출연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에는 의료법인 48개(의료기관 56개)가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도김치 맛에 반한 관람객들 제2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10월 4~8일) 이틀째인 5일 광주중외공원 내에 마련된 남도 김치 판매부스에 축제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순천 이전... 업무 개시

민선 6기 이낙연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가 순천 이전을 완료하고 6일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한다.

동부지역본부는 동부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늘어나는 환경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1과 3담당 17명의 과 단위 동부출장소를 3과 11담당 70여 명의 국단위 동부지역본부로 격상해 개편했다.

앞으로 동부권 주민 소통, 도청 및 자체 홍보, 도 민원 위임사무와 여수·광양지역에 밀집된 산업단지 환경업무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청 제2청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동부지역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이낙연 도지사를 비롯한 동부권 주요 기관단체장 등 주요 인사와 주민 대표를 초청해 청사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적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동부지역본부 개청으로 동부권 주민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 남약 도청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환경업무 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4년간 4300억 지출

올 800억 집행... 내년 광주 등 4곳 1400억 책정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으로 지출된 국방예산이 최근 4년간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공군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현황'에 따르면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이 본격화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의 배상청구 금액은 8500억원, 국방부와 공군이 지출한 배상금은 43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372건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 134만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119건에는 47만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청구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배상액을 보면 ▲2010년 1345억원 ▲2011년 1782억원 ▲2012년 926억원 ▲2013년 232

억원이었고,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1억5000만원 배상됐다. 공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518억원·이하 배상금), 강릉(255억원), 예산(20억원) 등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관련 판결로 올해는 800여억원의 배상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광주를 비롯해 수원, 청주, 서산 비행장 소음피해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14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전문 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리고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곳부터 비행장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hkpark@kwangju.co.kr

여수·고흥·보성 해양관광사업 투자 하세요

전남도, 7~8일 투자 의향기업 12곳 초청 설명회

전남도는 오는 7~8일 수도권과 도내에 소재한 해양리조트와 해양펜션, 마린아 개발 분야 투자의향 기업 대표자를 초청해 해양관광사업 투자유치에 나선다.

이번 투자 유치는 여수, 고흥, 보성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

첫날인 7일은 해상투어로 여수의 여수박람회장, 자산유원지, 진도모지구, 경도지구, 송도지구, 월호, 개도지구, 상·하화도, 백야도, 소호마리나를 둘러보고 8일에는 고흥 거금씨월드리조트, 우주리조트 특구, 보성 비봉마리나, 울포해양유지구 투어를 한다.

참여기업은 전남에 투자의향이 있는 동원산업(주), CJ그룹 자회사로 부동산 관리업체인 씨앤아

이레저산업(주), (주)미래세움, (주)한진SM, (주)CKIMP, (주)명인인베스트, 김스21, 여수블루투피아(유), (주)복지방송WBC복지TV, (주)천월드, 용진종합건설(주), 우성건설(주) 12개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다도해 비경 등 수려한 해양경관을 가진 전남은 앞으로 해양관광 레저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도 해양관광 개발계획 및 투자정보 제공 등 이번 참여 기업의 투자를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접촉 강화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3년 선상투자 유치를 통해 (유)에스에스알, (주)카네비컴해양, 성지산업 등 3개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홍-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 ② 에드를 레이저: 스무스빔, 아이슬, 브이빔, 프락셀
- ③ 세오 레이저: 쉐플렉스, 디오오우즈
- ④ 피부 미백: 쉐플렉스, 쉐플렉스, 쉐플렉스
- ⑤ 주름·흉터: 프락셀, 울트라펄스, 울트라펄스, 울트라펄스
- ⑥ 인트라라, 프락셀, 케나
- ⑦ 모공: 엔티지, 프락셀5종
- ⑧ 비인: 네오볼트, 지방흡입

[진료시간]
상무점: 평 일: AM 9:30 ~ PM 7:00
 토요일: AM 9:30 ~ PM 6:00
 (주말 및 휴일) AM 10:30 ~ PM 8:30
 → 밤: PM 10:00 ~ PM 2:00
문원점: 평 일: AM 9:00 ~ PM 6:30
 토요일: AM 9:00 ~ PM 4:30
*비인: 40여종의 레이저 40여종의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itic.co.kr
[문원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